

가치관을 명확히 세우는 방법

「두 개의 깃발」 묵상에서 이냐시오는 복음에서 선포된 가치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도록 도와준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개인적 선물로 주신다면, 우리가 사랑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확신과 자부심을 부여 넣어 주신다면, 우리가 왜 가난, 모욕, 경손을 가치 있게 여기겠는가? 이냐시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명확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도전하시는지 알 수 있게 도와준다.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가치를 결정하는가? 당신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에서 가치에 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이냐시오는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을 규정짓는 원리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이러한 가치를 다루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 쉽게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

영신수련에 나오는 가치에 관한 핵심적 묵상은 「두 개의 깃발」

이다. 여기서 이냐시오는 깃발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에서 군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깃발 하나는 이냐시오가 “인간 본성의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명명한 루치펠의 군대 진영 앞에서 펄럭이고 있다. 또 다른 깃발은 그리스도가 최고 사령관이신 진영 앞에서 펄럭이고 있다. 이냐시오는 상상력을 사용하여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 이 두 지도자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한다. 우리는 각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본다. 루치펠은 불과 연기가 흉측하게 치솟는 곳에 자리한 왕좌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는 조출하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곳에 서 계신다. 루치펠은 이 전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는가?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파견하시는가? 우리는 각 지도자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조적인 가치에 대해 묵상한다.

이냐시오가 주님의 적군 사령관에게 루치펠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루치펠은 “빛의 전달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고대 그리스도교 전승에 따르면 악마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천사 군단을 이끌다 하늘에서 추방당한 타락한 천사이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천사가 경배해야 한다는 것에 루치펠이 반기를 들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이냐시오는 루치펠이 하느님의 적이기 보다는 “인간 본성의 원수”라고 본다.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루치펠의 가치가 꼭 혐오스럽고 악한 것은 아니다. 루치펠이 천사였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루치펠이 빛을 지니고 있지만, 그가 제시하는 생각, 제안, 가치들은 거짓인 빛이며, 왜곡된 선이다. 그의 속임수를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식별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루치펠의 계획은 무엇보다도 부와 명예 그리고 자부심에 이끌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나쁜” 가치들이라고 서둘러 규정짓지는 말아야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서둘러 정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영성의 몇몇 전통들은 사실 부, 명예, 자부심을 강력히 배척한다. 그러나 이냐시오의 관점은 좀 더 미묘하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신수련의 초반부에서 강조하듯이, “이 세상 만물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 부, 명예, 자부심도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을 더 쉽게 알고, 사랑의 응답을 더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세우는 데에 있어서 첫 번째로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대조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예수님은 부, 명예, 자부심이 지니고 있는 거짓 매력에 정반대되는 가치를 내놓으신다. 당신의 삶이 보여 준 대로 그리스도는

부유함 대신 가난을, 명예 대신 무력함을, 자부심 대신 겸손을 내세우신다. 루치펠이 내세운 가치들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치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가난, 무력함, 겸손은 많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경건하고 바람직한 덕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러한 것들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가 이러한 가치들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사실 액면 자체로 보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냐시오의 관점은 처음에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던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루치펠의 계획이 단순히 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획이 명백하게 선이 아니다. 이냐시오는 선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루치펠을 따를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를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냐시오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에 협력하고자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냐시오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업에 협력할 때 취해야 할 가치 체계에 관하여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존재의 근본적 진리이다. 창조된 모든 것은 “하느님을 더 쉽게 알 수 있고, 사랑의 응답을 더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루치펠의 계획이 가진 문제

는 부, 명예, 자부심이 우리를 이 진리로부터 미묘하게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 가치들은 우리가 창조된 모든 것의 참된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현혹한다. 부, 명예, 자부심은 하느님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리게 한다. 우리가 무엇을 “부유함”으로 여기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우리 자신의 성취라고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받는 명예는 우리 스스로가 훌륭해서 또는 우리가 성취했으니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은 자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가 최고이며 전능한 자신이야말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해야 마땅하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를 근본적 진리로 되돌려 놓는다. 가난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하느님이 주신 선물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무력함을 포용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심을 인정하게 된다. 겸손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 다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가치들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완전하게 구현된다. 성자께서 강생하심으로써 인간이 되시어 완전한 겸손으로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성자를 들어 올리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가난과 무력함과 겸손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 내기 위해 애쓰는 이유다.

이 시대의 종교 문화 안에서 가난과 무력함이라는 그리스도교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존중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 선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게 되었다. 복음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던 고대 세계에는 그러한 가치들을 바람직한 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말로나마 그 가치들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말해 준다. 하지만 복음적 가치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치들이 지닌 근본적인 면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냐시오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어떤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서 루치펠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했던 설명은 단지 이해를 위한 시작일 뿐이다. 이는 영성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변화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제이다. 이냐시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략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 간구하기를 원한다.